



# 예수간호동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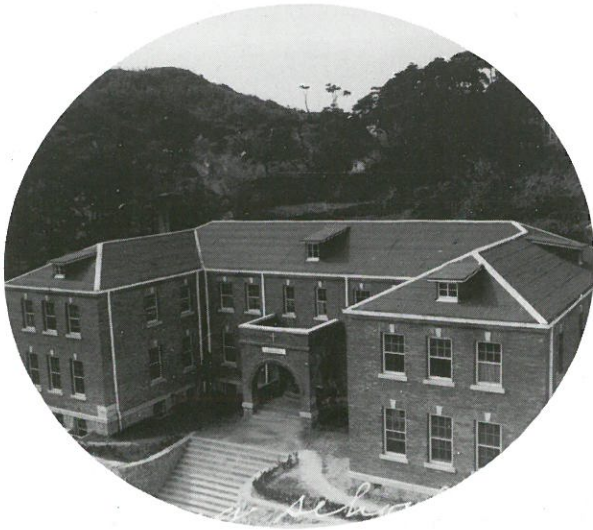
제 2 호

1998. 10

발행인:공순구 / 편집인:김강미자 / 발행:예수간호대학 동문회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68-1 (560-250) / (0652)230-7700 / Fax.(0652)230-7790



2회 동문 가관식전의 1학년 사진입니다.  
앞으로 회보의 사진은 졸업 회기별로 지속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에는 3회 동문의 사진이 될 것입니다.



◀ 구 학교 전경

▼ 현 모교본관 전경



차 례

1/제2회 동문(기관식 전)

2/학교전경

3/회장인사

4 / 정기총회 및 사업보고

5/지부소식

6/회원소식

7/모교소식

8/재상봉동문소개

9/동문의 글

10/11 동문탐방

12/13 제규정

14/이사회비 현황

15/발전기금 현황

16/동문들께 알립니다

## 꿈에서도 그리운...



동문회장 공순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함박웃음을 안고 가정에서, 간호 현장에서,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며, 평화의 사람들로 생활하시는 동문 여러분을 생각하며, 사랑의 문안을 드립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의 작은제자로, 선교사로, 혹은 소명받은 일꾼으로 기뻐하며 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속에 소원을 두시고 선한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대 환란을 맞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들어가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수해를 당하여 순식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게된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동문은 안계신지요?

금년 동문회 총회는 5월말 개교 기념일에 맞추어 열렸었습니다.

그리웠던 얼굴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들만의 추억과 사랑을 나누었고, 특히 "25주년 HOME COMING DAY"를 맞이한 제 20회 동문들은 성황리에 모여 옛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놀랍게 발전되어진 모교를 돌아보면서 즐거워들 하였습니다. 보고싶은 사람들이 만나서, 께안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셨던 동문께서는 다음 동문회에는 꼭 참석하셔서, 일상의 근심 걱정일랑 잠시 접어둔채 가슴저리도록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 못다한 이야기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 봅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모교를 4년제 대학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2000여 동문들의 관심과 정성속에서 학교 발전 기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온통 녹색으로 우거지던 우리의 녹원동산을 잊은 동문은 한 분도 안계실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생명의 빛깔인 이 녹색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녹원동산으로 돌려 보십시오!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 여정에서 맑은 샘솟는 기쁨과 사랑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수병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직 "복음전파"라는 한 목표를 위해 풍요로운 그들의 고국을 등지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한알의 썩어가는 밀알되어 그분들의 일생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예수병원 개원 100주년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된 것입니다.

또한 오는 2000년에는 우리 모교가 개교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때는 1회 졸업동문부터 15회 까지 "합동 재상봉" 모임과 함께, 총동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날에는 꿈속에서도 그리운 모습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그리운 얼굴, 얼굴들 만날날을 고대하면서, 한량없는 주의 평강이 동문 여러분의 일마다 때마다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녹음이 우거진 8월에

## 제 45차 정기총회 및 1997년도 사업결과보고

제 45차 정기총회를 1998년 5월 25일 모교인 예수간호대학 Pritchard Hall 101호에서 개최하였다. 동문회 총회에 앞서 개교 48주년 기념예배 및 나이팅게일 음악회가 오전 10시부터 모교의 Seel 기념 채플에서 개최되었는데 특별히 25주년 재상봉을 맞이하는 20회 동문들과 동문회 공순구회장과 임원들이 동참하였다.

제 25차 동문회 총회는 1회 선배님들로부터 막내인 45회 동문들까지 각 기 대표들과 25주년 재상봉을 맞이한 20회 동문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리에 화기에애한 가운데 열렸으며 1997년도 사업결과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선교비와 기도로 지원한것이 보고되었다. 지원한 선교사는 이춘심(23, 네팔), 박영희(25회, 중국), 김선이(30회, 필리핀)이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업으로는 동문회보 창간호를 발간하여 국내·국의 동문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그러나 주소가 확실치 못한 동문들에게 발송하지 못한 점과 발송했으나 주소가 변경되어 되돌아 온 동문들이 많아 아쉽기 그지 없었다.

그외 회원들의 경조사업과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지급, 후배들의 학보발간과 축제의 지원사업과 모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확보등의 활동이 있었다.

한가지 고 이영자(6회) 회원의 소천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슬프게 하였고, 그 가족에게 어려움이 겹쳐 회칙상의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에 의거 조위금을 전달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였고 뜻이 있는 회원들이 모금하여 금일봉을 그 가족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동문회 회원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는 소천할 회원의 명복을 기리기위해 예수간호대학 동문회 조기를 제작하여 회원의 분향소에 비치키로 하였다.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1998. 6. 1 ~ 2000. 5. 31까지의 임원이 일부 개선되었고, 총회에서 결정된 1998년도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동문 선교사 지원 사업 : 중국,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2. 동문회보 발간 및 발송
3. 회원 경조시 방문 및 경조비 전달
4. 회원 확보
5. 모교 발전기금 확보
6.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7. 모교 특별행사 지원 및 축하
8. 모교 우수졸업생 상훈
9. 모교 졸업생 선물전달
10. 모교 학생회 축제 지원
11. 모교 학보사 지원

## 마가렛(Margaret)모임

1981년 고 변마지 초대 교장님께서 생존하실 때 한국방문차 모교를 찾으실 계획이 있자 그 당시 모교에 재직하시던 홍신영 학장이 재전 동문들에게 가장 기쁘고 의미있는 만남의 계획을 부탁함에 따라 변교장님을 가장 잘 알고 직접 제자인 1회에서 17회까지의 재전 동문이 모이게 된 것이 마가렛모임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지속적인 만남의 의미를 갖고자 정기적으로 격월 모임을 가지면서 1982년 9월부터 고 변마지 교장님의 Initial name인 Margaret을 이 모임의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차츰 이 모임은 재전 동문은 누구나 참여하는 모임이 되었고 현재의 30여명은 격월로 약간의 회비를 지참하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와 위로가 되고 있다. 모아진 회비의 일부는 모교의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제 이 모임을 전국적인 만남의 장이 되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 놓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회원은 30여명정도이며 회장은 박순옥(6회) 동문이 맡아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 지부에서 보내주신 조그마한 소식들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각 지역 회원들의 동향과 풍성한 소식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인천·경기지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의 수는 470명이며 각자 맡겨진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이 어려운 IMF를 극복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부장은 동문회 부회장인 고유근(6회)동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강원 지역

이 곳은 총 6명의 회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원주기독병원 수술실 감독 간호사로 수고하던 김미자(8회)동문이 올 8월에 정년 퇴임을 하였습니다. 지부장은 부회장인 오은자(11회)동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대전·충청지부

이 지역에서 거주하는 회원은 총 61명으로 현재 대전에서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간의 영적인 교류와 우의를 다지고 매월 50,000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부장은 부회장인 이덕례(2회) 동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대구·부산·경상지부

이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은 총 26명으로 아직은 정기모임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알찬 모임을 갖도록 기도중이며 특별히 전국의 동문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신정자(11회)동문이 신병으로 수술후 퇴직하여 주안에서 신앙으로 투병중에 있으므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은 부회장인 최학례(15회)동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광주·전남지부

22명의 회원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연락이 용이하지 않고 광주에서 8명의 회원간에 연락이 종종 오가며 이중 3명은 광주기독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IMF로 한 병동은 폐쇄하여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으며 모두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부장은 부회장인 김연자(6회)동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전주·전북지부

전북내에 거주하는 회원은 862명이며 이중 275명이 예수병원에서 근무하고, 모교에서 7명이 교수로, 3명이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전 동문 모임은 현 마가렛 모임을 중심으로 격월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부장은 부회장인 박순옥(6회)동문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 미주 지부

미국 LA에 거주하는 김혜숙(Park Hye Sook) 동문(11회)이 미국내에 동문회보를 배부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모교에서 발행하는 신문 <예수간호학보>를 배부하는 수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재 (98. 9월 기준) 간호부서장으로 수고하는 동문과 해외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동문들의 명단입니다. 간호부서의 최고리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최전방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파악이 안되어 기재되지 못한 동문도 계실 수 있으니 아시는대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문중 간호부서장 소개 ▶

- 김연자 ( 6회, 광주 기독교병원)
- 라명희 ( 7회, 울산대학교병원)
- 곽광자 ( 9회, 울산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 오은자 (11회,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 김성란 (12회, 예수병원)
- 송국희 (19회, 전주 한마음병원)
- 권옥아 (20회, 서울 송도병원)
- 장용순 (21회, 무주 국제병원)
- 김옥숙 (22회, 전주병원)
- 송명희 (23회, 서울 서안 복음병원)
- 김명숙 (24회, 시흥 신천연합병원)

- 김옥순 (24회, 부평 안병원)
- 이인순 (24회, 인천 세명한방병원)
- 김명숙 (25회, 시흥 신천연합병원)
- 김길자 (29회, 서울 문곡한방암센터)
- 소재란 (32회, 서울 강남광해병원)
- 김은순 (37회, 진안 동부병원)

◀ 동문중 선교사 소개 ▶

- 윤자애 (12회, 네팔)
- 이춘심 (23회, 네팔)
- 박현수 (24회, 파키스탄)
- 박영희 (25회, 중국)
- 김선이 (30회, 태국선교 마치고 다시 준비중)
- 고은실 (34회, 필리핀)
- 유연순 (37회, 몽골)

'98 ~ '99 상임이사

- 회 장 : 공순구(2회)
- 부회장 : 제1부 회장 - 김성란(12회)  
 서울·경기지역 - 고유근(6회)  
 광주·전남지역 - 김연자(6회)  
 전주·전북지역 - 박순옥(6회)  
 강원지역 - 오은자(11회)  
 대전·충청지역 - 이덕례(2회)  
 대구·부산·경상 - 최학례(15회)
- 총 무 : 이인수(4회)·김금자(16회)
- 서 기 : 김강미자(15회)·박정순(17회)
- 회 계 : 김봉선(20회)·전영신(23회)  
 김은숙(25회)
- 감 사 : 유금주(18회)·정여숙(22회)

'98 ~ '99년도 이사

- 21회 최정애
- 26회 옥루수, 이혜숙
- 27회 엄정이, 주은덕, 윤매옥, 조민숙
- 28회 소성섭, 박정순, 김경희, 천성숙, 박양숙  
이옥주, 백경자
- 29회 유정애, 이성숙
- 30회 김미선, 양영실, 이은규, 김난숙, 이순복  
이미선
- 31회 이미숙, 육현숙, 김은실, 남미숙, 서영희,  
김정남, 고선화, 송계숙, 박지숙, 이명남,  
박혜숙, 박정자, 이은하, 강신자, 우정순
- 32회 함선희, 최경애, 김현주, 이정란, 이복경,  
유순자, 성경자, 이옥희, 손영자, 김미연
- 33회 최봉남, 주인자, 박미경, 홍영란, 이승은,  
정길순, 조현란, 이성희, 정수행, 배옥수,  
배금배, 김영숙, 김성미A
- 34회 엄혜경, 곽경숙, 이 란, 양유미, 김미선  
이덕자, 백경아, 최정희, 곽계숙, 송남숙  
심선자
- 35회 양경자

1. 교명 [예수간호대학]으로 변경

지난 6월 1일부터 우리대학 교명이 [예수간호대학]으로 변경 되었다.

교육부의 전문대학 교명자율화 방침에 의하여 우리대학은 교직원, 재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와같이 변경한 것이다.

2. 전자계산소 운영시작

1998년 2월 우리대학은 학생의 전자계산 교육의 지원과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계산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소장은 김근곤 교수(교육학)가 임명되었다.

3. 개교 48주년 기념예배 및 제 20회 동문 재상봉

지난 5월 25일 Seel Chapel에서 대학설립 48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또한 졸업 25주년을 맞이한 20회 동문 9명이 모교를 방문하여 반가운 재상봉 시간을 가졌다.

4. 간호학연구소 소식

(1) 「제2회 목회간호사업 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지난 6월 10일 우리대학 간호학연구소 주최로 제 2회 목회간호사업 개발을 위한 세미나가 Keller Hall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교회를 통한 간호사업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와 의료인, 교수, 재학생들이 참석하였다.

(2) 1998년도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확정

▶ 간호학연구소는 1998학년도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확정된 4개 연구제목과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김금자, 김강미자, 윤진, 황성자 교수)

▷ 목회간호에 대한 요구조사 (차영남, 임혜경, 정정숙, 정여숙교수)

▷ 간호전문학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윤배, 장효순, 공은숙, 김근곤교수)

▷ 간호계대학에서의 교수매체 활용에 관한 연구 (양광자학장, 공은숙, 김근곤교수)

(3) 간호학연구소 연구기금으로 공순구동문회장께서 100만원,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동문이 100만원을 보내주셨다.

감사합니다.

5. 교수동정

(1) 한혜실교수 : '97. 8~'98. 7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 간호대학에 방문교수를 마치고 귀국함.

(2) 김금자, 차영남, 임혜경, 장효순교수 :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1998년도 연구비 수혜받음.

(3) 장효순교수 : 지난 2월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박사 학위 취득함.

논문제목 <지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경험>

## 졸업 25주년 재상봉

모교 예수간호대학에서는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졸업 25주년을 맞이한 동문들의 재상봉 시간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제 16회 동문들의 열의로 시작된 재상봉 행사는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든 교정을 떠났던 졸업동문들이 25년만에 보고싶었던 학우들을 만나고 모교를 방문하는 이 행사는 재학중인 후배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 20회 동문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제 21회 동문들이 모일 차례입니다. 21회 동문 여러분께서는 미리 계획 하시어 더욱 뜻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앞으로 계속될 재상봉 시간을 통하여 보고 싶었던 학우도 만나고 모교도 방문하시어 후배들이 자랑스런 예수간호대학인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16회 재상봉 동문

▼ 제20회 재상봉 동문





## 진리안에서...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며 믿음을 심어주던  
일들도 생각한다.”



권옥아 동문 (20회)  
(서울송도병원 간호과장)

암환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아담하고 조용한 곳.  
그곳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수다스럽거나 기교는 없으나 소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  
표정은 적으나 깊은 정을 줄줄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특히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버드나무 나무가지에 물이 오르고 짝이 날때쯤이면 해마다 병원에서 봄소  
풍을 떠났던 아름다운 기억이 나를 감정의 샘가에 이끌어 낸다. 그렇게 여행이란 우리를 풍요롭고 여  
유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다는 생각과 함께.....

주사실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날부터 근무했던 7년여의 세월들, 그 곳에서 암치료를 받고 갔던 많은  
환자들.

그중에 유난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인이 생각한다. 그녀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에  
도 불구하고 1년여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었다. 그 환자의 죽음은 어떤 행복이  
나 고통앞에서도 견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했었다.

또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하며 믿음을 심어주던 일들도 생  
각난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의지하고 기다렸었다.

어느날 어떤 환자분은 유난히 우리를 기다렸다 한다. 그분은 우리가 방문하던 중에 하늘나라로 올  
림을 받았다. 환자 부인은 아마도 간호사님들 보고 싶어 기다리더니 마음이 놓여서 세상을 떠났나 보  
다고 했다. 기억나는 또다른 환자는 병어리 환자였다. 통하지 않는 대화로 열심히 사랑과 믿음을 심어  
주려 애썼는데 내가 서울로 떠나오는 바람에 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 TV 를 뜯고  
그 안쪽에 넣어 두었다는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는 자기 농사는 물론 남의 농사 일까지 지  
어주고 돈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나 부인도 자식도 없이 외로이 살았던 사람. 정이 그리웠기에 찾아가  
는 우리들에게 TV속에서 돈을 빼어 손에 쥐어주던 그 정성은 어쩌다 받아 본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  
사였을 것이다.

아름답지 않아도 지나간 것은 아름답게 승화되어 보이는 법.

나의 삶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전주의 추억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부분일 수 밖에 없다.

어쩔 영원히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나는 친척 본토 아버의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언제나 내게는 새로운 것  
에 대한 거부와 옛것을 고집하는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묘약이 되기도 했다. 즐거웠고 행복했던 육체의 날들이 지나면 곧 이어질 영원한 세계, “진리를 알므  
로 진리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처럼” 지금의 날들은 옛것에 대한 미련도 아쉬움도 저만치 먼 손님이  
되어서 있다.

## 양순복 직전 동문회장님 덕을 찾아서

때 : 1998년 9월 23일

탐방자 : 박정순 위원, 양복순 간사



“남문시장 매곡교 부근의 송약국하면 전주 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문제 없이 찾을 수 있을 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이다. 성실하게 대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해온 35년의 전통을 가진 약국, 그 약국 안방마님이 우리의 선배님 양순복님이시다. 굽디 고운 얼굴에 환한 미소와 단아한 옷차림으로 우리 취재팀을 맞아주셨다.

선배님의 취미로는 골프를 90~95정도(상당한 수준)로 치시며, 분재, 서예에도 조예가 깊으시다. 가족으로는 30여년전에 예수병원에서 Patricia Hui의 중매로 만난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멋진 남편과 첫째와 둘째 아들 며느리 내외, 3쌍의 딸 사위, 손자 손녀는 앞으로 세상에 나올 2명까지 11명이 있으신 다복한 가정의 내무장관님이시다. 일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 오신고로 약간 느릿한 어투로 인터뷰에 응하셨다.”

문1. 어떻게 저희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친척오빠가 미국에서 돌아와 예수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오빠 만나러 병원에 갔다가 하얀 까운을 입은 보조 간호사들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입고 나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지. 학교에 입학한 후 건강이 나빠서 1년을 쉬어야만 했어. 그만 둘까 망설였는데 변 교장님의 설득과 정성으로 졸업해서 남편도 만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졸업한 것은 순전히 변마지 선생님의 돌보심 덕분이지요. 제

문2. 후배들이 지금 힘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한 말씀해주시지요.

제가 병원에 근무당시는 6·25 직후였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지금을 그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풍부한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시절에는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있었지요.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 근무를 나가면 아이들이 병원 앞에 즐비하게 버려져 있었지요. 부모들이 먹

양순복 선배님은 동창회장으로 18년동안 봉사하셨고 지금은 학교 이사로 계신다. 동창회 당시 신애학사와 예배당 건축 기금을 모금하려고 공순구 현 회장님과 전국을 누비며 동문들을 찾아다니셨다.

가 복학후 부족한 학점을 보충하는데 변마지 선생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일대일 교육을 해주셨어요. 실습시간이 부족하여 졸업장을 졸업식때 받지 못해도 식에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셨지요. 부족했던 실습시간을 채운 뒤에 교장실에서 선생님과 저 단둘이서 졸업장 수여식을 했지요.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예요. 그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지요.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 것 같아 아쉬워요.

이고 입힐 것이 없어서요. 이런 아이들을 정성껏 씻기고 먹이고... 환자나 간호사들이나 보호자나 의사들이나 서로 고마워하고 배려하는 등 맘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악조건이었지만 잘 견뎌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이야말로 경제적 난국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맘이 난국인 것 같아요. 이럴때일수록 한걸음 후퇴하여 우리의 인생전체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때예요. 우리 후배들은 이런 때 빛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어려우면 생활을 줄이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지요. 나는 이 생각을 철저히 하고 살아왔지요. 내 손에 없는데 카드로 원하는데로 구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예요. 가정 살림, 나라 경제 모두 여자 손에 있는것 같아요.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도록 해야 해요.

문3. 후배들이 어떤 간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대 간호사들은 봉사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매우 살기가 어려웠어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까 하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천하여 별 수 없으나 단지 생활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돌보았으면 하지요. 우리 학교는 기독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 설립동기가 아닌가요? 세상이 변하였어도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간호사들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 선교사들에게 배운 것(봉사 정신)을 실천했으면 해요.

나는 전주 태평교회 창립멤버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제 나는 권사이고, 남편은 장로예요. 또 대학생 선교회 어머니순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최근에 새로운 어머니순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공부하고 서로 돕기도 하구요. 남편이 60살까지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위주로 살아야 한다고 노인대학 강사로부터 많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셔서 나도 덩달아 같이 하죠. 그리고 여성들이 할일이 없어서 겹방이나 몰려다니지 말고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해요. 그것은 상급이 있지만 목적없이 몰려다니면 상도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예요?

문6.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하시지요.

어려워도 아름다운 추억을 나에게 준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동안 우리학교 2학년 학생들이 베트남에 의료봉사하러 나갔을 때 많은 약품을 헌물해 주셔서 너무도 귀하게 쓰였다고 한다. 6·25사변 이후 우리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끼지 않고 내주신 선배님 내외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그 사랑의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맺으리...

문4. 선배님, 나이에 비해 젊게 사는 비결 좀 우리들에게 나눠 주실래요?

첫째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맘에 안드는 사람을 보았을 때 '아', 그럴수도 있구나, 나도 저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접어두는 맘의 여유라고 할까? 항상 감사해하며 내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예요. 결과는 그 분의 손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둘째로는, 남편이 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편이예요. 맘에 불편하게 해 본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육은 후패하나 형은 새로워지나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지름길이지요 뭐 다른 길 있나요?

문5. 교회, 사회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든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면 하지요. 특히 4년제 대학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으면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평생 체험하며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되었으면 해요.

선배님께서 손수 키우신 분재들을 보며 분재를 통해 선배님의 섬세하시고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었다. 약국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근무 연한이 25년에서 최하 10년이라니 아랫사람을 잘 거느리시는 훈훈한 분이심에 틀림없다. 손수 탁 주시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귀한 가정의 모든 식솔들과 송약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떠나왔다.

1 동안 동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문회 회칙의 시행세칙, 평생회비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 동문회 장학금 지급규정, 특별기금 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본 회보에 제 규정을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수간호대학 동문회 시행세칙

제1조(목적) 동문회 회칙에 따른 시행세칙을 정하여 원활하고 정확하게 동문회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제2조(회원입회) 회원등록은 예수간호대학 졸업반 3학년 말에 소정의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일괄 등록한다.

제3조(입회비) 회원의 입회비는 년회비의 3배로 한다.

제4조(회원) 회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되고 년회비를 납부하면 일반회원이 된다.

제5조(경조비) 회비완납자에 한하여 회원과 회원 남편의 애사시에는 일반미 년초 정부고시가 80kg으로 한다.

경사시에는 당사자가 개별 청첩하여 축하한다. 단, 회원이 기관의 장 또는 담당간호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추대되는 경우는 백미 20kg에 해당하는 선물로 축하한다.

제6조(재정) 1. 재정은 다음 사항을 회계 3인이 각각 담당한다.

- 1) 경상비 관리, 장학기금 : 회계
- 2) 평생회비 관리, 이사회비 : 부회계
- 3) 기금 및 찬조금 관리 : 특별회계

제7조(보관장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보관한다.

- 1) 회칙 및 시행세칙
- 2) 회원명부
- 3) 현금 출납부
- 4) 특별기금 및 찬조금 대장
- 5) 예금통장
- 6) 회의록
- 7) 기타 필요한 장부

### 평생회비 관리규약

제정 1993. 6. 1

제1조(목적) 본 규약은 평생회원의 회비(이하 "평생회비"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회원의 정의) 평생회원이란 본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하므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회원의 자격) 평생회원의 자격은 예수간호대학 동문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회비외의 부담금) 평생회원이라 하더라도 본회가 정하는 회비외의 부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5조(평생회비) 평생회비는 본 회비의 15배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생회비의 관리)

- ① 평생회비는 경상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된다.
- ② 평생회비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필요시 총회결의로 경상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7조(경과규정)

- ① 평생회원으로 등록된 평생회비는 본회가 일괄 관리한다.
- ② 제 1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평생회비의 이자 중 2분의 1은 평생회비로, 2분의 1은 경상비로 지급한다.

### 예수간호대학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관리규정은 모교인 예수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이 납부하는 기금 및 찬조금에 대한 관리를 공정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조직) 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되 학장과 모교 교수 그리고 1/2은 동문회 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기금 조성) 대학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조성한다.

1. 동문회 이사회비로 조성된 기금
2. 25주년 재상봉시 모교에 전달하는 발전기금
3. 동문이 모교 또는 동문회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발전기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제4조(기금 통합) 모교로 입금된 기금 및 동문회로 입금된 기금은 당일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직무)

1. 위원장은 학장이 당연직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제7조(기금의 통합 및 관리)

1. 조성된 기금은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집행한다.

제8조(감사의 선임과 의무)

1. 감사는 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 2인을 선임하되 이사 1인, 모교교수 1인으로 한다.
2. 감사는 대학발전기금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매년 회기말경에 감사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제10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부터 당해년도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보관 장부) 본 기금을 관리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보관한다.

1. 기금 납부 대장
  - ① 학교용      ② 동문회용      ③ 통합용
2. 현금출납대장
3. 예금통장
4. 영수증철
  - ① 학교용      ② 동문회용      ③ 통합용

### 예수간호대학 동문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장학생의 정의) 예수간호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매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방법) 학기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그 지급 방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5조(장학금 지급 기간) 본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장학기금 관리)

1. 장학금의 재원은 기금 및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2. 장학기금은 경상비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된다.
3. 장학기금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제7조(장학사업 금액) 본 장학회 장학금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8조(세칙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때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수간호대학 동문회 특별기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동문회 특별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특별기금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기금조성) 동문회 특별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조성한다.

- (1) 신입 회원은 1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특별기금 회비를 납부한다.  
(단, 납부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납할 수 있다.)
- (2) 회원의 특별 찬조금
- (3) 기타

3조(기금의 사용)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본 기금은 특별회계가 관리한다.

제5조(보관장부) 본 기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보관한다.

- (1) 시행세칙
- (2) 현금 출납부
- (3) 특별기금 및 찬조금 대장
- (4) 예금통장
- (5) 기타

## 동문회 이사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문회 이사회가 1992년 6월 모교 발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그후 1997년 5월 예수간호대학 발전기금 관리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모금된 이사회비와 기타 기탁된 발전기금을 합하여 예수간호대학장이 관리위원장으로 기금을 책임 관리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이사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교의 발전에 긴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금확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용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신중한 회의를 한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 기	성 명	납입액수	회 기	성 명	납입액수	회 기	성 명	납입액수
1회	김정숙	34만원	12회	양해숙	15만원	22회	이덕실	10만원
※	박혜옥	50만원	13회	강희자	24만원		조점엽	15만원
2회	최순자	35만원		박정자	39만원		김형자	15만원
※	공순구	87만원		오순화	10만원	23회 ※	정정숙	50만원
	김은옥	33만원	14회 ※	김정숙	50만원		서인숙	15만원
	이덕례	10만원		유영삼	34만원		전영신	15만원
4회 ※	양순복	122만원		정숙자	12만원		고정순	10만원
※	이인수	50만원	15회 ※	김강미자	50만원	24회 ※	양명순	50만원
	황희성	5만원		양정숙	39만원	※	김경림	50만원
※	황희심	50만원	※	최학례	50만원	※	유계숙	50만원
5회 ※	이준례	39만원	16회 ※	김금자	50만원		배은경	15만원
	김정순	5만원		권양순	24만원		김숙희	15만원
6회 ※	박순옥	50만원		지옥순	12만원		김순애	15만원
※	서정순	50만원		주정님	5만원		황영숙	10만원
※	고유근	50만원	17회	김용옥	39만원	25회 ※	김은숙	50만원
※	김연자	50만원		박정순	39만원		임순옥	29만원
※	양광자	50만원		이학순	34만원		유금희	15만원
7회	이경자	39만원		김명숙	10만원		정하숙	15만원
※	염정임	50만원		조현숙	15만원		유필숙	15만원
	라명희	5만원	18회	박홍순	15만원		김현숙	15만원
8회	이 라	34만원		류금주	15만원		이정희	15만원
※	백영애	50만원		장현화	15만원	26회 ※	한혜실	50만원
	박희정	15만원	19회	유 순	34만원		양복순	15만원
9회 ※	양정복	50만원		송국희	5만원	27회 ※	윤 진	50만원
※	은재희	50만원		유점순	15만원		정명휘	15만원
	서명자	5만원		한금녀	15만원	※	이화주	50만원
	임행자	15만원	20회	김봉선	22만원		조민숙	5만원
10회	이순자	29만원		최옥주	15만원	28회	방현숙	28만원
	박은영	1만원		장은숙	15만원	29회 ※	양명석	50만원
※	전혜경	112만원	21회	차혜영	29만원		송호은	10만원
11회 ※	신정자	50만원		장용순	34만원		이효실	15만원
※	오은자	80만원		서정자	15만원	31회	고선화	5만원
12회 ※	김성란	50만원		박효순	10만원		이명남	5만원
※	이광자	50만원	22회 ※	정여숙	50만원	대전지부 회원		75만원
※	이향숙	10만원		송성희	15만원	총 액		₩37,962,991 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원 이사회비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93년 6월부터 시작되어 현 年 회비는 5만원이며 평생회원비는 10배인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모교 발전기금 현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용	금 액
제16회동문 졸업 25주년 재상봉	2,250,000
제 17회동문 졸업 25주년 재상봉	1,800,000
1995년 5월 미국 L.A 동문회 참석 동문 양광자 50,000 김강미자 50,000 임덕자 50,000 박경신 50,000 이학순 50,000 박정순 50,000 이덕실 50,000 김형자 50,000 방영숙 50,000 황영숙 50,000 김현숙 50,000 김혜숙 50,000 유필숙 50,000 김은숙 50,000 이영은 50,000 전애리 50,000 이정희 50,000 양정임 50,000 이혜숙 50,000 조정숙 50,000 송미령 50,000 주은덕 50,000 조민숙 50,000 이화주 50,000 윤매옥 50,000 이정화 50,000 양명석 50,000 박미경 50,000 신향숙 50,000 박옥자 50,000 김정란 50,000 기타잡부금 88,000	1,638,000
제 18회동문 졸업 25주년 재상봉 최명자 1,000,000 전양심 1,000,000 서정례 1,000,000 오영희 1,000,000 박홍순, 유규주, 장현화, 이정자, 박정선, 서혜숙, 김영순 정 순, 한순애 1,000,000	5,000,000
양순복 전 동문회장	900,000
제 19회동문 졸업 25주년 재상봉	1,000,000
마가렛회	300,000
양광자 학장	10,000,000
제 14회 운애자 동문	200,000
한복회 동문 (\$ 20 <sup>00</sup> )	26,488
마가렛회	200,000
제 16회 황성자 동문	1,000,000
공순구 동문회장	30,000
보유덕 선생, 정정숙 동문 - 「영적간호」 인세	680,000
제 20회동문 졸업 25주년 재상봉 노정숙 200,000 권옥아 200,000 이혜숙 200,000 허민숙 200,000 최옥진 200,000 한순숙 200,000 장은숙 200,000 최옥주 200,000 신혜옥 200,000 김봉선 200,000	2,000,000
최신애 동문	100,000
소 계	27,124,488

**동문들에게 알립니다**

예수간호 동문회보는 모교 및 동문회, 동문 회원들의 활동소식을 모든 회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창간되었습니다.

동문회보가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2229명 동문간의 우의와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통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문회비 납부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문들의 주소, 연락처, 소식을 보내주시요.  
직장 또는 지역단위의 동문주소록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회소식을 전해줄 통신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회에서 통신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0652) 230-7751, 230-7720 / FAX (0652) 230-7790
- ▶ 동문회비 계좌 : 축협 501-11-17042-816 예수간호대학

**예수간호대학발전기금출연안내**

1.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 4년제 승격준비
- 도서관 발전
- 면학환경조성
- 학술연구기금

조흥은행 702-01-112407

공순구

연락처 : 예수간호대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68-1  
(562-250)

TEL (0652) 230-7701

230-7730

230-8007

FAX (0652) 230-7790

2. 대학발전기금 출연범위

- 동문
- 교직원
- 동문회 이사
- 25주년 재상봉기념
- 학생 및 학부모
- 뜻있는 단체 및 개인
- 기독교 재단

5. 기부한 분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3. 기부형태

- 현금·적금(부금)·교육용 비품·기타자산

**편집위원** 김강미자  
박정순  
김봉선  
양진순  
양복순

4. 납부방법

조흥은행 702-01-135580  
예수간호대학